

# 예술로 소통하는 '인문학콘서트'

전남대사대부중 '인문예술콘서트'  
6월과 9월 5개 강좌 진행  
클래식·팝페라 공연 곁들여  
11일 장성규 클라리넷 도전기



박진영 대표    소프라노 박정순    강성률 교수    정의석 대표    최우성 교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문학과 예술의 감성 콜라보레이션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최근의 인문학 강연은 인문학 자체보다 철학, 심리학 등 인접 학문과 연계해 예술을 매개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시민들과 소통하고 인문적 감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전남대사대부중(교장 김득룡)은 지역사회 인문예술콘서트를 개최한다.

6월부터 9월까지(7·8월 제외) 총 5개의 강좌가 펼쳐지는 이번 인문예술콘서트는 인문예술을 매개로 교육공동체의 인문 소양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전남대사대부중(교장 김득룡)은 '소나무학습공동체'와 광주시교육청 예술교과연구회 '비상', 인문학동아리 '책벌레 리더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콘서트는 해당 일자 월요일 오후 4~6시 전남대부중 4층 도서관에서 열리며 미술작품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떠

는 미술 이야기'의 김수옥 미술교사(떠미샘)의 진행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콘서트는 주제별 인문 강연과 매 시간 음악가의 공연이 어우러져 이색적인 인문예술콘서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1일 첫 강좌에는 장성규 클라리넷리스트가 강사로 나선다. "포기할 수 없는 나의 클라리넷" 저자의 인생이야기를 주제로 꿈을 향한 도전의 음악 인생 이야기를 들려 줄 예정이다. 1급 시작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일 카셀 음대 석사 및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클라리넷 전문연주자 과정 석사를 마친 장씨의 꿈을 향한 도전기가 펼쳐진다. 강연과 함께 장씨는 연주를 통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전한다.

2강은 오는 18일에 전 아나운서이자 공감 커뮤니케이션 대표인 박진영 강사의 말하 강연이 예정돼 있다. "결정적 말실수"의 저자인 박 아나운서는 "저자와의 대화"에서 대화법 그리고 소통 방식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강연 이후에는 바리톤 이태진과 소프라노 박정순의 듀엣 공연이 펼쳐진다.

9월 3일에는 철학 강연이 펼쳐진다. 광주교대 윤리교육과 강성을 교수가 "위대한 철학자는 철학적으로 살았을까"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철학자들의 삶을 통해 현재 우리의 삶을 성찰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라노 박정순의 노래가 함께한다.

9월 10일에는 지역사회심리건강지원

를 모두 대표인 정의석 교사의 심리학 강연이 진행된다. 강연과 함께 '아들러의 미용 받을 용기-노예의 삶을 살지 않기'라는 주제로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이태진의 연주도 펼쳐진다.

9월 17일 마지막 강의는 커피에 관한 이야기다. 커피의 향기를 찾아 따라가는 문화예술사이야기를 통해 인덕대 외래교수인 최우성 교사가 커피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풀어낸다.

특히 강의 중 커피를 내려 커피 시음도 있을 예정이다. 이날은 팝페라 그룹 '뮤턴트 보이즈'의 테너 박현과 바리톤 최교성의 열창이 준비돼 있다. 문의 062-530-380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왜 시를 쓰는가' 질문을 던지다

권여원 시집 '...첫 페이지'

2011년 '시와 세계'로 등단한 권여원 시인이 계간 시산맥 제18차 감성기획 시선 공모 당선 시집 '구름의 첫 페이지' <사진>을 펴냈다.

모두 50여편의 시가 수록된 시집에는 "관찰자적 시선으로 대상을 찾아가는"작품들이 담겨 있다. 이 같은 '탐색과정'은 왜 시를 쓰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향한다.

"렌즈는 내 생각을 보고 있다/ 하루의 그림자가 본을 뜨면 렌즈구름이 판독한다/ 살아온 날들을 한 컷으로 압축하는 신의 안목은/ 숨 가쁘게 달려가는 사람들 뒤돌아보게 했다/ 아침의 잘못을 들여다본다는/ 활영 의도가 구름의 첫 페이지에 기록되어있다" ('렌즈구름' 중에서)

'렌즈구름'은 렌즈 또는 비현상을 이룬다는 대상은 절대자이며 이른 시 쓰기의 다른 의미로도 다가온다. 마경던 시인은 해설에서 "문란한 현시대의 부조리 앞에 나약한 개인의 무력감을 조명한 '렌즈구름'은 신이 인간에게 보내는 진지한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평한다.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내 영혼이 별이 되기를 꿈꾸는 순간부터 눈물은 나를 만들어가는 원석이 되었다"며 "당신의 유리병에 나의 눈물을 담아 드린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구름으로, 시인은 인간을 지켜보는 "신의 눈"으로 형상화한다. 그러면서도 늘의 구름을 보고 외양을 중시하는 인간과 달리 신은 중심을 본다고 노래한다. 시인이 탐색

하는 대상은 절대자이며 이른 시 쓰기의 다른 의미로도 다가온다. 마경던 시인은 해설에서 "문란한 현시대의 부조리 앞에 나약한 개인의 무력감을 조명한 '렌즈구름'은 신이 인간에게 보내는 진지한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평한다.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내 영혼이 별이 되기를 꿈꾸는 순간부터 눈물은 나를 만들어가는 원석이 되었다"며 "당신의 유리병에 나의 눈물을 담아 드린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최초 장편 SF '완전사회' 50년 만에 재출간

한국 최초 장편 SF 소설로 꼽히는 '완전사회' (사진)가 50년 만에 새ปก을 출간됐다.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활발한 지금, 이미 50여년 이전에 이런 상황을 예견한 듯한 내용과 더불어 SF적 상상력을 과감하게 펼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당초 소설은 문운성(1916~2000) 작가가 1965년 '주간한국'의 창간 기념 추리소설 장편 공모에 당선된 작품이다. 1967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됐으며 이후 1985년 '여인공화국'이란 제목으로 두 권으로 나뉘어 다시 출간됐지만 금세 잊혔다.

이번에 출판사 '아작'은 원전 그대로 펴내면서 세로쓰기 형태를 가로쓰기로



바꿨다. 소설은 주인공 남자가 타임캡슐에 탑승한 채 161년 동안 잠자다 깨어난 상황에서 진행된다. 그동안 지구는 여성만이 존재하는 세

로 바뀌어 있다. 여성들만 남은 세상을 진성문화 단계로 인식된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환기하고 그럼에도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드러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페미니즘·시 창작...광주시민인문학 6월 강좌

광주시민인문학은 내달 1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56기 정기강좌를 개최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강좌(오후 7시30분-금요일은 오전 10시 30분)는 인문학을 토대로 다양한 학문과 문화를 접해보는 시간이다.

월요일에는 인문학입문 시간으로 명혜영 교수(일문학)가 '페미니즘의 쓸모를 이야기하다'3-남자가 남자에게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화요일에는 김청우 교수가 '시 창작-이론에서 실기까지'를 강의하고, 수요일

에는 철학스터디 시간으로 명혜영 교수가 '몸으로서의 정신-베르그송 '물질과 기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목요일 신우진 씨가 진행하는 '목독연구회'에서는 '목독이 책을 읽자-십인십책(十人十冊)'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금요일에는 서양철학시간으로 이진우 교수가 '기술문명과 인간 본성'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토요일(오후 2시)에는 무비토크 '영화 덕후' 시간이 예정돼 있다. 문의 010-4624-1201, 062-412-879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40년 소리꾼 박춘맹, 내일 강산제 심청가 완창

광주 빛고을국악전수관

40년 소리꾼 인생을 살아온 명창 박춘맹씨가 8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강산제 심청가 완창에 도전한다.

이날 박 명창이 들려줄 강산제 심청가는 서편제를 기반으로 보성 지역에서 대대로 전승된 보성소리다.

강산제는 서편제 창시자로 알려진 박유전(1835-1906) 선생의 초창기 소리로 박유전 선생이 만년에 여생을 보낸 보성의 강산마을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서편제와 마찬가지로 애절하고 구성진 가락이 특징이다.

특히 박유전 선생은 '심청가'를 완성할 때 애절한 가락을 추가해 슬픈 장면은 한 없이 슬프게, 비통한 장면은 끝을 모를 정도로 침통하게 표현했다.

'심청가', '흥보가', '춘향가', '수궁가', '적벽가' 등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슬픈 장면이 가장 많은 것이 '심청가'라든 '심청

가' 여러 소리형식 중 가장 슬픈 형식이 강산제 '심청가'인 셈이다.

강산제 심청가는 문학적 가사가 화려하고 치밀하게 짜인 사실, 미려하고 격조높은 짜임새로 호응을 얻고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인 박 명창은 24세에 국립 장극단에 입단한 후 광주시립극단 수석단원, 전남도립극단 지도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2006년 임방울 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로 국창 조상현 선생을 사사했다.

이날 공연에는 임영일씨와 장보영씨가 고수로 출연한다. 또 박정희, 임서연, 전지혜, 정주희, 김다희, 유민희, 정인성, 류세운, 임황철씨 등이 출연해 남도민요 '사철가'와 '진도아리랑'을 선보인다.

박 명창은 "이번 심청가 무대는 소리를 하는 동안 갈고 닦은 모든 재능과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판소리를 사랑하고 즐기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명창 박춘맹

## 광주 빛고을국악전수관 3개월 과정 수강생 모집

광주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6기 국악문화학교 및 방과 후 어린이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7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국악문화학교는 민요, 판소리, 가야금, 대금, 가야금병창, 장고, 고법, 해금 등 8개 강좌를 초·중급반으로 구분해 운영하며 초등학교생을 위한 방과 후 어린이강좌도 진행한다.

각 과정별 20명 내외로 모집하며 수강을 원하는 주민 및 어린이는 오는 30일까지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3개월에 5만 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062-350-4557)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악문화학교는 지금까지 1만 40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하는 등 국악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9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